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ik@ownnewengland.com  
 ClaraPai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2월 17일 세일럼 소재 피바디에섹스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송년 단체장 간담회에 참가한 단체장들과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를 비롯한 영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보스톤코리아 26일자 정기휴간**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주간을 맞아 26일자를 휴간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소원하시는 일 이루어시길 기원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임직원 일동-

편집자 노트

### 보스톤코리아가 바뀝니다

〈전체 기사 읽기〉

그동안 보스톤코리아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는 2026년, 변화를 선택합니다. 20년간 매주 종이신문으로 여러분과 만나왔던 보스톤코리아는 이제 여러분의 손과 책상 앞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매체로 전환합니다.

한 시대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잉크 냄새와 작별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큼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은 보스톤코리아에 유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 AI 혁명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미디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변화하

▶2면으로 계속

## 총영사관, 한인사회 단합의 상징인 PEM서 단체장 송년간담회

### PEM 한국관 재개관 성과 공유... 뉴잉글랜드 한인단체장 송년간담회 매사추세츠 비롯 4개 한인회를 비롯 각 단체서 참여해 대화 나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뉴잉글랜드 한인단체장 송년 간담회가 K-컬처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피바디에섹스박물관(PEM)에서 열렸다. 보스턴총영사관(총영사 김재휘)이 주최

한 이번 간담회에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단체장과 학계, 과학 및 전문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의 중심 화제는 PEM 유길준 한

〈전체 기사 읽기〉

국 갤러리의 재개관이었다. 지난 5월 15일, 1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유길준 한국 갤러리는 2025년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특히 동포 사회가 힘을 모아 약 4만여 달러를 모금해 박물관에 전달한 과정은 문화 공간의 복원을 넘어 한인 사회의 단합을 보여준 사례 ▶▶5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노트

# 보스톤코리아가 바뀝니다

▶▶1면에 이어서  
고 있습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언론사들은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지금, 보스톤코리아는 이 바람을 거슬러 서기보다 함께 타고 유연하게 변화하겠습니다. 이것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일한 한인 언론으로서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는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는 변화와, 어쩔 수 없이 떠밀리는 변화는 전혀 다릅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아직 독자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있을 때 이 길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 변화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거친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격동의 AI 시대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동반자이자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역사 기록자로서의 책임과 자세도 잊지 않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은 기회입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변화하되, 더 강해지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과 온라인 보스톤코리아를 강화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보스톤코리아닷컴은 약 2년에 가까운 개발 과정을 거쳐 최신 버전의 웹사이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글을 누르는 순간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횡행하는 사기를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도 추가, 보완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지면신문은 2026년부터 매월 첫째 주 1회 발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대신 현재와 같이 매주 디지털 신문을 발행해, 매주 금요일 이메일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구독 요청을 눌러주시면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을 통해 언제든지 빠르게 보스톤코리아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에서는 연락처를 클릭하면 이메일이나 전화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지면 읽기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원하는 기사를 누르면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해당 기사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월 1회 발행되는 보스톤코리아 지면신문에는 최근 3주간의 인터넷 신문을 통해 독자들의 반응이 컸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과 보강을 거쳐 게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 달 주요 기사 요약과 커뮤니티 행사 사진도 보다 충실히 담아낼 예정입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독자적인 콘텐츠 제작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종이신문 제작에 투입되던 자원을 재배분해, 보스톤 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뉴스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문 문법에서 벗어나 뉴스 전달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고, 팟캐스트와 본격적인 동영상 뉴스 제작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인물을 담아내며, 이 지역 한인사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도록 기록자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주정부 차원의 각종 정책과 제도 변화속에서 한인

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한인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와 재정 분야에 더욱 비중을 두고, 주식과 금융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각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주 여러분의 광고 효과와 수익 극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지면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를 연계한 통합형 광고를 통해, 광고의 가치가 더욱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를 이용해 주신 독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사든 광고든 한 번 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새로운 정보의 세계를 열고, 동시에 한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때, 보스톤코리아와 한인사회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보스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새해 떡국 잔치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새소망 글로벌 감리교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보스톤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떡국 정찬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모여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는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며, 보스톤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장소는 보스톤새소망 글로벌 감리교회로, 주소는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이다.

문의는 김지영 전도부장 (603) 674-3415, 진남조 목사 (201) 667-9777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벌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동포 2세 차세대 교사 양성 과정 수료식 열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50주년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한글 교육을 실천하며 나라사랑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동포 2세 차세대 교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과 보스턴 총영사관 김재휘 총영사, 학부모회(회장 박선영), 보스톤코리아 장명술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보조교사회 박현아 리더 교사의 사회로 개최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학교는 지난 1년간 2세 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한 차세대 교사들과 이들을 지도한 교사들에게 소정의 지원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일 교장은 “오늘 시상식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1년 동안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배들의 수업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편집장과 편집부원으로서 학교 교지인 KSNEAN(한영신문/월간) 신문의 발간을 위한 인터뷰 진행, 교지의 기사를 쓰고 번역과 편집을 맡는 등 학교의 여러 곳에서 차세

대 리더들의 빛이 밝게 발하고 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렉싱턴에서 뉴턴 오크힐 중학교 건물로 이전한 이후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유아반부터 이중언어 과정, 성인 학급까지 모두 10개 과정, 50개 학급으로 구성된 대규모 한국학교다. 오전과 오후 수업은 물론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주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 수준을 갖춘 학교로 평가 받고 있다. 학교측은 “저학년 학생들뿐 아니라 한글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찾는 동포 2세와 성인 학습자들도 많아 차세대 보조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올해는 약 40명의 동포 차세대 보조 교사들이 수업과 학교 운영을 돕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들로, 주말 시간을 내어 후배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청소년들이 재능기부 의사를 밝히며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학교는 차세

### 〈전체 기사 읽기〉

대들의 도움 속에 배움과 나눔이 이어지는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보조교사회는 월간 한영신문 KSNEAN을 교지로 발간하고 있다. 편집부원들은 학교 안팎의 주요 행사와 시사·문화분야를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뒤 번역해 온·오프라인 신문으로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가을 학기는 2026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2월 21일 시작되는 봄학기 등록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나

이 메 일 (koreanschool.ne@gmail.com

), 전화(508-523-538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병아리반과 기초 1과정은 이미 등록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입학 경쟁이 치열하지만, 부모가 보조 교사로서 지원하는 가정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장학증서를 받고 환하게 웃으며 함께한 차세대 교사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지도교사상을 받은 박현아, 박춘아, 이보람, 우다혜, 장은아 지도 교사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뉴잉글랜드 연세 동문회, '연세인의 밤' 성황리에 개최

## 60여 명 넘는 동문과 가족이 한자리에 — 추억 · 웃음 · 온기가 넘친 송년의 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 송년회 “연세인의 밤” 이 60여 명이 넘는 동문과 가족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2월 13일,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의 커먼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연세대 동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동기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다. 특히 한식 뷔페 형식으로 준비된 따뜻한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현장에서는 어른과 아이 모두가 참여한 양키스왑 선물 교환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선물을 뺏고 빼앗기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고 연세 동문 특유의 유머와 따뜻한 분위기를 한껏 느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 백현일 회장은 “이번 송년회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 바쁜 이민 생활속에서도 연세인으로서의 유대와 따뜻한 정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이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들이 친정집처럼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연세인의 이름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통할 줄 몰랐다” 등 훈훈한 소감을 남겼다.

연대 관계자는 “행사장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진심 어린 대화속에서, ‘연세는 하나’ 라는 말이 자연스레 실감나는 밤이었다.” 고 전했다.

# 힐리 주지사, 매스 공항 이용 이민자 수송 즉각 중단 요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연방 이민당국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매사추세츠내 공항을 이용한 민간 추방 항공편 운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힐리 주지사는 ICE가 매사추세츠 한스컴 필드 (Hanscom Field) 공항에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구금된 주민들을 신속히 타주로 이송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리 주지사는 12월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ICE 직무대행 국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최근 ICE가 한스컴 필드를 이용해 주민들을 체포 직후 수시간 내 타주로 이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범죄 전과나 기초소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주민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매사추세츠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범죄 전

〈전체 기사 읽기〉

력이 없으며, 일부는 매사추세츠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였다. 힐리 주지사는 이러한 추방 방식이 공동체의 안전을 높이는 커닝 오히려 모두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힐리 주지사는 “체포 후 수시간 내 주민들을 타주로 이동시켜 가족과 지지 체계, 그리고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단절시키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잔인하며,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적법절차와 법적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매사추세츠와 미국이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ICE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신속 추방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접촉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할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리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이 같은 관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기본권과 적법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특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유람 코리아 미디어 투어

J2K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대청 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 총영사관, 한인사회 단합의 상징인 PEM서 단체장 송년간담회

▶▶1면에 이어서  
로 끝냈다.

김재휘 총영사는 한국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뉴잉글랜드 동포 사회에는 중요한 한 해였음을 상기시켰다. 김 총영사는 “PEM 한국관 재개관의 성공을 이끈 동포 사회의 단합”을 높이 평가했으며 “갤러리가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 언론과 한국의 중앙일보, SBS 등에도 소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은석 동포영사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발언 시간에는 각단체 대표들이 올해 활동과 향후 방향을 간단히 공유했다.

장영수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은 “한인회는 지역 내 모든 한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각단체들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한인회를 불러주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인회가 행사와 지역 활동에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례 메인 한인회장은 메인 한인회와 한글학교, 어린이 박물관 활동을 소개했고,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신년 떡국 모임, 참전용사 행사, 다문화 행사 참여 등을 소개했다. 윤광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PEM 재개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돌이켜 보면 PEM 재개관을 위한 한인 사회의 모금 운동은 지난 2024년 단체장 송년 모임이 출발점이었다. PEM 한인사회 후원회장을 맡았던 양미아 시민협회 이사장과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1년 전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PEM 한국관 재개관을 계기로 전시 공간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예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미아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이사장도 지난해 출발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개관이 한인 사회 내부의 연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측은 연말 퍼스트나잇(First Night) 행사 계획을 소개했다. 평통은 올해 퍼스트나잇 행사 현장에서 케이팝 캐릭터 ‘데몬몬스터’ 복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메시지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한국과 자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챔피언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한 한국학교 전용 빌딩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궁연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차세대와 2세대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 제6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댄 고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혜선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두 가지로 “마약과 총기”를 꼽으며, 한인 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 교육을 계



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뉴잉글랜드 한인 의사연구회, 뉴잉글랜드생명과학협회, KASBP 등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신영 KASBP 보스턴 지부 회장은 미국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보스턴에 약 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정기 모임과 연 2차례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단체장 송년 모임에 앞서 참석자들은 PEM 김지연 큐레이터의 설명으로 유길준 한국 갤러리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에서는 향후 한국관 운영 계획도 함께 소

개됐다. 김 큐레이터는 “한국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2026년 2월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4월 한국 미술 디지털 커뮤니티 출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617.742.7707**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브라운대 총격 사건 이후 매사추세츠 대학들, 캠퍼스 보안 강화 나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보스톤 지역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주의 주요 대학들이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캠퍼스 보안 강화와 학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13일 브라운대 캠퍼스에서 기말고사 대비 수업(review session) 도중 발생했으며,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수요일 현재까지 5일째 검거되지 않았으며, 수사 당국은 '의심 인물(person of interest)'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MIT는 15일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불러오는 불안과 깊은 슬픔을 우리 역시 함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MIT는 캠퍼스내 경찰 배치율을 늘리고, 총기 난사나 폭력적 침입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교육을 MIT 경찰과 학교 비상관리 부서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말고사 주간에 들어간 보스톤대학교(BU) 역시 강화된 보안 조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학교 대변인은 "BU 공동체와 방문객

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교내 경찰은 학생 신문인 하버드 크립스에 캠퍼스내 경찰 인력을 증강하고, 하버드 야드에 위치한 사이언스 센터와 스미스 캠퍼스 센터처럼 평소 개방돼 있던 건물까지 포함해 모든 건물 출입 시 학생증 카드 인식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측 대변인은 이에 대한 추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버드 4학년생 제임스 맥애프리는 WBUR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운대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친구나 지인이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 이번 사건이 더욱 피부로 와 닿는다"며 캠퍼스 분위기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전했다.

브라운대가 위치한 프로비던스와 보스톤 지역은 95번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약 50마일 거리로, 주는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브라운대와 마찬가지로 MIT, 하버드, BU 역시 캠퍼스가 도심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다.

### 〈전체 기사 읽기〉

이번 총격 사건에 따른 학생들의 불안은 실제 학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맥애프리는 자신의 경제학 수업 복습 세션이 총격 사건 다음 날인 일요일, 대면 수업 참석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줌(Zoom)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들은 익명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용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캠퍼스에 있는 학생으로 지내는 것이 매우 두렵다"며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학교의 학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브라운대는 학기 종료까지 남아 있던 모든 대면 시험을 취소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교(URI) 사우스킹스타운 캠퍼스와 프로비던스 칼리지 등 다른 로드아일랜드 지역 대학들 역시 남은 모든 대면 시험을 취소했다.

대학을 넘어 초·중·고교인 휘러스쿨은 이번 주 남은 수업과 모든 활동을 취소하고, 겨울방학을 조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휘러스쿨의 마크 앤더슨 교장은 월요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번 주말의 비극적 사건과 계속되는 수사를 고려할 때 지금은 어떤 이에게도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브라운대 총격 수사 5일째... 경찰 근접 사진 공개, 비디오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대규모 수색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브라운대학교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주·지방·연방 사법당국은 캠퍼스 안팎의 각종 CCTV와 차량·상점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시민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재까지 확보된 단서는 선명하지 않은 사진과 영상에 불과하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브라운대 1학년 무카마드야지즈 우무르조코프와 2학년 엘라 쿡

의 사망과 관련해 특정 인물을 조사 대상으로 두고 있으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를 지휘하는 당국자들은 여전히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로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안에 빠진 지역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수색은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닷새째로 접어들었다.

경찰은 수요일 오후 추가로 사진을 공개하며, '조사 대상자와 근접해 있었던 인물'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도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당국은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내셔널그리드, 매사추세츠 가스요금 인상 추진... 2027년부터 10퍼센트 인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내셔널그리드가 매사추세츠 주 전역의 천연가스 요금 인상을 추진해 이르면 2027년부터 연간 가스 요금이 평균 약 10퍼센트 오를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 내 약 95만 명의 천연가스 고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내셔널그리드는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 회사는 내년 1월 중순 주 공공유틸리티국(DPU)에 공식 요금 인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기본 배분 요금(base distribution rate)' 조정을 위한 것으로, 지난 수년간 가스 배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내셔널그리드가 기본 요금 인상을 신청해 승인받은 것은 약 5년 전이 마지막이었으며, 다만 연료비 부분은 천연가스 도매 가격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DPU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 왔다. 내셔널그리드 요금 인상이 전면

승인될 경우, 겨울철 기준으로 보스턴 가스(Boston Gas) 공급 지역인 그레이터 보스톤과 중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는 요금이 평균 8.4퍼센트 오르고, 케이프코드와 메리맥 밸리 일부를 포함하는 콜로니얼 가스(Colonial Gas) 지역에서는 평균 9.4퍼센트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스턴 가스 지역 고객은 겨울철 한 달에 약 24달러, 콜로니얼 가스 지역 고객은 약 25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회사는 겨울철 요금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증가한 비용을 연중보다 고르게 분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보스턴 가스 고객의 요금은 연간 기준으로 약 9.8퍼센트, 콜로니얼 가스 고객의 요금은 약 연간 10.9퍼센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신청은 매사추세츠 주 공공요금국이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DPU는 최근 모라 힐리 주지사의 지시에

**〈전체 기사 읽기〉** 따라 전기 및 가스 요금 변동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송배전 비용 등 요금 구성 요소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셔널그리의 이번 신청 역시 '배분 비용'에 해당한다. 내셔널그리드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의 일부를 로웰 지역의 가스관 터널 공사, 도체스터 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압축기 업그레이드 등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관리 중인 가스 배관은 약 1만1천 마일에 달하며, 이 가운데 거의 3분의 1은 197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이다. DPU의 최종 결정은 2026년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승인될 경우 새 요금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보스톤 가스 고객 약 73만 명과 콜로니얼 가스 고객 약 22만 명으로, 이들 가운데 90퍼센트 이상이 주거용 또는 소규모 사업자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주,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전면 재검토 착수...두 단계 조사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주 규제 당국이 전기 및 가스 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각종 요금 항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두 단계 조사에 착수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국(DPU)은 15일 성명을 통해 전기와 가스 요금 고지서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 항목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조사를 향후 수개월 내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요금 변동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요금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해 에너지 비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모라 힐리 주지사가 지난 10월 DPU에 공식 요청한 전면 재검토 요구에 따른 것이다. 힐리 주지사는 당시 유틸리티 회사들이 주 전역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당화되지 않은 요금 항목은 제거해야 한다고 가스 및 전기 요금 고지서의 모든 항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DPU는 이번 조사가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요금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요금 설계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들이 고지서를 이해하고 요금 변동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체 기사 읽기〉** . 2단계에서는 유틸리티 요금 고지서의 전반적인 설계를 살펴 요금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별로 상이한 고지서 구조를 보다 일관되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PU는 또한 특정 요금 항목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지, 혹은 고정 요금 형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별 요금 인상 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매사추세츠는 전기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주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DPU가 요금 고지서에서 특정 요금 항목을 삭제하거나 인하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서한을 통해 DPU에 "모든 요금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해 폐지, 인하, 또는 영향 완화가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DPU는 이번 조사와 함께 올해 주민들이 겪은 심각한 요금 청구 오류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의 요금 청구 관행을 점검하고, 유틸리티 회사들이 정확하고 투명하며 적시에 요금 고지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트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 떡국 잔치

**보스톤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떡국 정찬을 대접하고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일시: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대상: 보스톤 지역 거주 어르신 누구나**  
**장소: 보스톤새소망 글로벌 감리교회**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문의: 김지영 전도부장 (603) 674-3415**  
진남조 목사 (201) 667-9777



# 하원 공화당 의원들, 민주당과 손잡고 건강보험안 표결

### 확대 세금크레딧 3년 확대 민주당 안 표결 청원에 4명 합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 지도부에 반발한 하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오바마케어(ACA) 확대 세금 크레딧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뉴욕)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3명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이탈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ACA 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가구에 제공돼 온 확대 세금크레딧을 3년간 연장하는 안건에 대해 하원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당초 보조금 연장과 함께 일부 축소를 병행하는 절충안 논의를 요구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제도 악용 가능성

을 이유로 표결 자체를 막자 민주당과의 공조를 선택했다. 이로써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218명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실제 표결은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롤러 의원은 보조금 연장에 대해 “표적화되고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사기 방지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그는 “지도부가 모든 행동을 봉쇄할 경우 의회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허드슨벨리 지역 가정들이 정치적 교착 상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내년에 의료 개혁 전반을 다룰 것이라며 지도부를 우회하는 입법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수당과 정류 절차

를 거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10월 셋다운부터 논의의 핵심이 된 확대 세금크레딧은 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도입돼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보조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연방 빈곤선의 4배를 초과하는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탈 청원은 과거에는 드물게 사용됐지만, 이번 회기처럼 하원 다수당의 의석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표결을 강제한 사례가 있었다.

hsb@bostonkorea.com

# MIT교수, 브루클라인 자택서 충격으로 사망

### MIT플라즈마 과학·핵융합 센터장 누노 루레이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전체 기사 읽기〉

= MIT의 저명한 교수이자 플라즈마 과학·핵융합 분야의 핵심 인물인 누노 F.G. 루레이루 교수(47)가 브루클라인 자택에서 충격을 받고 숨졌다. 경찰은 현재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퍽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루레이루 교수는 15일 밤 자택에서 흉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건은 브루클라인 김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월요일 오후 8시 30분쯤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루레이루 교수는 다발성 총상을 입고 있었다.

루레이루 교수는 MIT 핵과학·공학과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MIT 플라즈마 과학 및 핵융합 센터(Plasma Science and Fusion Center) 소장을 맡고 있었다. MIT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과 학생, 동료, 그리고 그를 애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루이스 코언은 월요일 밤 메노라 쏫불을 켜던 중 여러 차례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을 열었을 때 건물 입구 안쪽에 루레이루 교수가 등을 대고 쓰러져

있었으며, 자신과 다른 이웃, 그리고 그의 아내가 즉시 911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FBI 보스턴 지부의 테드 독스 특수요원은 최근 발생한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IT 뉴스에 따르면 루레이루 교수는 “이론 물리학과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과학자”로, 2016년 MIT에 합류해 2022년 플라즈마 센터 부소장을 거쳐 2024년 소장으로 임명됐다.

루레이루 교수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티투투 수페리오르 테크니쿠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2005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와 영국 원자력청 산하 핵융합 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웃들에 따르면 그는 세 자녀의 아버지였다. 사건 다음 날인 화요일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지인들이 그의 자택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은 평온했던 동네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O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JUNG KWAN JANG



행사 기간: 12월 5일 ~ 12월 31일

SALE  
UP TO 20%

- \$200 이상 구매시 10% 할인
- \$300 이상 구매시 15% 할인
- \$500 이상 구매시 20% 할인

행사1



보자기 포장 제공

홍삼정 240g  
 홍삼정 리미티드 (3개입)  
 천녹, 달임액 구매시

행사2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NO.1 WORLD'S NO.1 GINSENG BRAND

125 125 YEARS OF QUALITY & PURITY

420 420 QUALITY & SAFETY TESTS

FIND OUT MORE



JUNGKWANJANG.US/  
f / KGCUS

보스톤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929.600.4880

# 연말의 빛을 걷다, 크리스마스 주간 보스턴 겨울 페스티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크

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보스톤 전역에서는 연말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겨울 페스티벌들이 한창이다. 반짝이는 조명, 눈 내리는 실내 빌리지, 그리고 겨울 밤을 밝히는 대형 빛 설치 작품들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벤트들이 눈에 띈다.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보스턴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부터, 최신 감각의 라이트 페스티벌, 그리고 역사적인 묘지를 배경으로 한 동지 기념 예술 축제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곳은 크리스마스 주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전 온라인 티켓 구매가 필수인 곳도 있으니, 서둘러 계획을 세워보자.

## 보스톤 윈터 페스트 (Boston's Winter Fest)

보스톤 윈터 페스트는 최근 몇 년 사이 보스턴의 새로운 겨울 명소로 자리 잡은 겨울 카니발 겸 라이트 페스티벌이다.

행사는 후드파크(Hood Park) 내 '더야드 옛 찰스타운 (The Yard at Charlestown)' 에서 열리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겨울 분위기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곳은 대형 빛 설치 작품들과 이탈리아 산 관람차와 6,000개의 LED 조명으로 꾸며진 관람차를 포함한 다양한 어트랙션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페스티벌 내에는 눈이 실제로 내리는 아이스 캐슬, 산타 워크샵, 그리고 4인까지 수용 가능한 히팅 곤돌라(30분 이용 시 \$15)가 마련되어 있다.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전체 기사 읽기>

바, 미니 홀리데이 마켓, 그리고 다양한 음식 판매대도 운영된다. 모든 티켓은 반드시 도착 전 온라인으로 사전 구매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토요일에는 4시 15분부터 일찍 문을 열어 더 많은 시간 동안 겨울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주소: 100 Hood Park Dr, Boston, MA 02129

날짜: 12월 19일-30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휴무)

시간: 오후 5시-9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4시 15분 시작)

웹사이트: <https://www.winterfest-boston.com/>

## 인첸티드 빌리지 옛 조던스 퍼니처 (The Enchanted Village at Jordan's Furniture)

1950년대 보스턴 다운타운의 조던 마시 (Jordan Marsh) 백화점에서 시작된 Enchanted Village는 뉴잉글랜드의 가장 사랑받는 홀리데이 전통이다. 현재는 조던스 퍼니처 (Jordan's Furniture)가 이 전통적인 디스플레이를 인수·복원해 운영하고 있다.

1960-70년대의 크리스마스를 재현한 이 디스플레이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빈티지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선사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반세기 전 미국의 연말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곳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를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디스플레이 관람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내부의 다양한 어트랙션은 별도 티켓이 필요하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는 튜브 슬라이드(\$3), 실내 아이스 스케이트 Enchanted Ice(30분 \$9, 스케이트 대여 포함), 17분간의 레이저 라이트 쇼 LITE(\$9), Rudolph the Red-Nosed Rein-



deer 4D라이드(\$10), 그리고 순록 아케이드 게임(\$2)이 준비되어 있다.

12월 24일까지는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되며, 조던 마시 백화점 시절부터 명성을 이어온 '조던 마시 블루베리 머핀 (Jordan Marsh Blueberry Muffin)' 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 또한 어트랙션 티켓 수익의 일부는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즐거움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더한다.

주소: 100 Stockwell Dr, Avon, MA 02322

날짜: 1월 1일까지 운영 (크리스마스 당일 휴무)

시간: 월-목 오전 11시-오후 7시, 금 오전 11시-오후 8시, 토 오전 10시-오후 8시, 일 오전 11시-오후 6시 (12월)

웹사이트: <https://www.jordans.com/enchanted-village/>

## 솔스티스 옛 마운트 어번 세메터리 (SOLSTICE at Mount Auburn Cemetery)

솔스티스(SOLSTICE)는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마운트 어번 세메터리 (Mount Auburn Cemetery)에서 열리는 겨울 동지를 기념하는 독특한 빛과 소리의 예술 축제

다. 이 행사는 단순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넘어, 빛과 소리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통해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야외 산책로를 따라 배치된 대형 '빛 설치 작품(light installations)' 과 사운드 아트는 역사적인 묘지 풍경과 어우러져 독특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내 공간에서는 라이브 음악 공연과 촛불 점등 행사가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조용하고 사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행사는 사전 예약된 시간대별 티켓으로 운영되며, 일부 날짜는 조기 매진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 주말은 빠르게 매진되는 편이어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주소: 580 Mount Auburn Street, Cambridge, MA 02138

날짜: 12월 5일-21일, 2025 (12월 20일, 21일 매진)

시간: 웹사이트에서 시간대별 티켓 확인 필요

웹사이트: <https://www.mountauburn-solstice.org/>

bostonkorean@hotmail.com

# 패트리어츠 초반 리드 지키지 못하고 강적 빌스에 역전패

## 동부지구 우승 확보 아쉽게 놓쳐, 빌스에 한게임 차 리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일요일 전반 21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전에 붕괴하며 빌스에 35대31로 패했다. 이번 패배로 패트리어츠는 9월 이후 이어오던 10연승도 마감했으며 AFC 동부지구 우승도 확정하지 못했다.

뉴잉글랜드는 2쿼터에 21점 차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들어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버펄로는 다섯 차례 연속 공격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지구 우승 경쟁의 불씨를 살렸다.

경기 초반은 일방적이었다. 드레이크 메이는 1쿼터에 두 차례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뉴잉글랜드에 14대0 리드를 안겼다.

2쿼터에는 트레이비언 헨더슨이 52야드 터치다운 러닝을 성공시키며 점수는 21대0까지 벌어졌고, 패트리어츠는 일찌감치 승부를 끝낼 기세였다.

그러나 2쿼터 막판, 조시 앨런이 제임스 쿡과 연결하며 빌스가 21대7로 추격에 나섰다. 패트리어츠는 전반 종료 직전 앤디 보레갈레스의 36야드 필드골로 24대7 리드를 유지했다.

전반전 획득한 야드 수는 패트리어츠가 285야드, 빌스가 76야드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후반 두 쿼터에서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패트리어츠 수비는 무너졌고 공격은 정체됐다. 버펄로는 후반 시작 후 21

<전체 기사 읽기>

점을 연속으로 올리며 4쿼터 초반 28대24로 역전에 성공했다.

패트리어츠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어진 공격 첫 플레이에서 헨더슨이 다시 한번 폭발하며 65야드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질레트스타디움은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빌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쿡이 이날 세 번째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다섯 번째 연속 공격 성공을 이끌었고, 경기 종료 6분 48초를 남기고 35대31 리드를 잡았다.

뉴잉글랜드는 이후 두 차례 더 역전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 모두 자기 진영 25야드를 넘기지 못했다.

메이는 23차례 시도중 14패스 성공, 155야드와 인터셉션 1개, 러싱 43야드와 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앨런은 28시도 중 19



패스 성공, 193야드와 세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11승 3패가 된 패트리어츠는 10승 4패의 빌스에 한 경기 앞선 채 AFC 동부지구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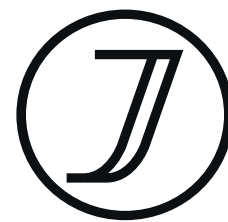
패트리어츠는 다음 주 일요일 밤 프라임타임 경기로 볼티모어 원정에 나서 레이븐스를 상대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위기의 트럼프 "내년봄 최대규모 세금환급...전례없는 경제붐 온다"

### 지지율 하락속 對국민연설서 성과 자랑하고 장밋빛 전망... 내년 중간선거 포석 "1년만에 상상못한 성과내...실질임금 물가보다 빨리 올라"

(서울=연합뉴스) 객민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취임 1년 만에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이날 밤 9시부터 백악관에서 20분 가까이 생중계한 대국민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도 워싱턴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등 선출)를 앞두고 고(高)물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난 1월 취임 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부각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과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며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동맹 세력(민주당)은 수조 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나는 지금 그 높아진 물가를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취임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은 지난 48년간 최악이었다. 이 모든 일은 민주당 행정부 시절 벌어졌으며 그때 '감당 가능한 생활비'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했다"며 고물가 상황이 전임 정부에서 비롯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나는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약 2천660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안보를 의미한다"며 "이 성과의 상당 부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국경 방어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 마약과의 전쟁, 의약품 및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회복했고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으며 이란의 핵 위협을 끝내고 가자 전쟁을 끝내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고 인질 석방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지갑과 은행 계좌에서 (변화를) 확인할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도입한 새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천~2만달러(약 1천630만원~2천96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봄은 관세 효과와 (감세) 법안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 장병 145만명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천76달러(약 26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1천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는 누구도 쉽게 깨지 못할 기록이 될 것이며, 전기 요금과 전반적인 물가가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취임할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믿는 사람"으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에 따라 새해 초부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에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주택 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PBS와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천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

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생활비 부담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정부·여당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간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내년에 실질임금 상승과 감세,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yumi@yna.co.kr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ghwan.co.kr

**좋은사람들**  
www.junghwan.co.kr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 ↑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2021년 이래 최저 상승폭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  
파원=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 2.7%를 기록하면서 둔화  
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1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

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고 18일(현  
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1%)를 밑도는 수치다. 지난  
9월(3.0%)보다도 낮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

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9월(3.0%)과 비교해 낮은 상승  
률을 보였다.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수개월간 지속된 고질적인 물가 압  
박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지표로 해

석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  
했다.

이번 발표는 10월1일부터 11월12일  
까지 이어진 43일간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  
로 예정(12월 10일)보다 여드레 늦게  
나왔다.

10월 CPI의 경우 관련 예산 편성

중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  
별도로 집계하지 못했다고 BLS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따  
라 그간 일반적으로 CPI 발표 때 담  
겼던 데이터가 일부 빠지거나 지수  
계산에 "비조사 데이터"가 쓰이기도  
했다고 BLS는 부연했다.

실제 9월 발표 자료와 대조해 보면  
주요 품목별 월간 변동률 산출에 제  
약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 CNBC방송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미국 통화 정책이 완화할 수  
있다는 투자자 기대감을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분석용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  
할 때 11월 CPI를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하다는 '확대해석 경계론'도 있  
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  
미국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연방  
준비제도(Fed·연준) 정책 입안자  
들이 11월 CPI 보고서에 영향을 받  
지 불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를 거쳐 기준  
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 구윤철 "자금 해외로 나가는 구조 개선"...환율 대응 의지 강조

## '쿠팡사태' 피싱 1천만 원 피해사례도...금감원, 소비자경보 높여

"경상 흑자 900억달러인데 해외 유출 자금 1천500억달러...韓시장 매력 키워야"  
삼프로TV 출연..."한국형 국부펀드, 정부 관여 배제하고 공격적 운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다.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

나 주주 이익 보호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한다. (중략)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약 1천500억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최근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배경을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구성한 4차 협의체가 이른바 뉴 프레임 워크를 모색 중인 것이 "국민연금 자산을 활용해 환율을 관리하거나 방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 해지에 대한 인식

을 공유하는 취지"라며 "단기적인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지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달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구상이 "투자처를 국내외로 가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가 출연한 삼프로TV는 12일 녹화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조성미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포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가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약성약·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ykbae@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DEC. 19th - DEC. 25th, 2025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CHRISTMAS** YOUR HOLIDAY FEAST SAVINGS ARE HERE

FRIENDS AND FAMILY WILL ENJOY THEIR FAVORITE DISHES FROM H MART!  
즐거운 크리스마스 만찬 준비는 H 마트와 함께하세요!

**Kimchi EVERYDAY**

## BEEF KATSU

Golden panko-crispy outside, tender juicy beef inside. Drizzled with tomato-oregano sauce. Try this at home with H Mart's ingredients and create the ultimate holiday comfort bite to share and savor. 황금빛 바삭함과 육즙 가득한 비프 카츠! H 마트와 함께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보세요.

Bean Tip (Mue) 콩Tip LB <b>\$2.99</b>	Pomegranate 석류 BOX <b>\$19.99</b>	Chinese Broccoli 중국 브로콜리 LB <b>\$0.99</b>	Frozen Durian 냉동 두리안 14.11 OZ/PKG MUSANG KING <b>\$24.99</b>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b>\$9.99</b>	Shanghai Tip 청경채 Tip LB <b>\$1.69</b>	King Oyster Mushroom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10.58 OZ/PKG <b>2\$4.99 FOR</b>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10 LB/BOX <b>\$12.99</b>	Kabocha 단호박 LB <b>\$0.79</b>	Fuyu Sharon 샤론 단감 BOX <b>\$14.99</b>	BLACK THRON <b>\$29.99</b>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b>\$0.99</b>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7-11 CNT/BOX <b>\$27.99</b>	Strawberry 딸기 1 LB/PKG <b>2\$4.99 FOR</b>
<p>FR/SAT/SUN/MON ONLY 금,토,일,월 한정판매</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b>\$7.99</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7.99</b>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b>\$3.49</b>
<b>U.S.D.A. CHOICE</b>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b>\$16.99</b>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 LB <b>\$3.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b>\$8.99</b>	Live Abalone from Wando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b>\$3.99</b>
Frozen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b>\$23.99</b>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b>\$5.99</b>
Frozen European Seabass (Branzino) 브란지노 600-800'S/LB <b>\$6.99</b>	<b>YEAR-END SPECIAL SALE</b>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LB/BOX <b>\$169.99</b>

###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b>\$11.99</b>	H MART SMART CARD ONLY JINGA Seafood Porridge 진가 해물죽 14.8 OZ X 3 EA/BOX <b>\$11.99</b>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Melon Kick Corn Puffs 농심 메론킥 6.34 OZ <b>\$5.99</b>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Banana Kick Banana Snack 농심 바나나킥 6.34 OZ <b>\$5.99</b>

OHSUNG Hong Ramyun 오성 홍라면 MILD/HOT & SPICY 4.2 OZ X 5 EA/PKG <b>\$3.99</b>	OTTOGI Kimchi & Pork Dumplings Jumbo Mandu 오뚜기 김치 왕만두 1.5 LB <b>\$7.99</b>	PULMUONE Jjamppong Noodle Soup Kit 풀무원 직화 짬뽕 12.8 OZ <b>\$5.99</b>	K TOWN Beef Bulgogi 케이타운 소불고기 FAMILY SIZE 16 OZ <b>\$11.99</b>	THE HOUSE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 그 집 떡갈비 전통/매콤 떡갈비 ORIGINAL/SPICY 16 OZ <b>\$9.99</b>
GOMPYO Korean Pancake Mix 곰표 부침가루 2.2 LB <b>2\$5 FOR</b>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b>\$4.99</b>	K TOWN Dukboki Snack 케이타운 쌀떡볶이 스낵 5.29 OZ <b>2\$4 FOR</b>	DANYA Mochi Mochi Ice Cream 단야 모찌모찌 아이스크림 ASSORTED 2 FL OZ X 6 EA/PKG <b>\$3.99</b>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b>\$3.99</b>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8.04 FL OZ X 12 CANS/BOX <b>\$10.99</b>	DAESANG Rosebud Coffee Mix 대상 로즈버드 커피믹스 ORIGINAL/MOCHA 2.65 LB (100 STICKS/BOX) <b>\$10.99</b>	HELLO HOME Plush Rabbit Slippers 헬로홈 토끼 슬리퍼 MEN - BROWN/NAVY/GREEN WOMEN - PINK/MINT/YELLOW <b>\$7.99 PAIR</b>	SURLASANG Black Stone IH Noodle Pot 수라상 블랙스톤 IH 냄비 ONE HANDLE 7.1 IN <del>\$33.99</del> <b>\$25.99</b> TWO HANDLES 7.9 IN <del>\$37.99</del> <b>\$28.99</b> EA	ZOJIRUSHI Stainless Steel Mug 조지루시 스테인레스 머그 <del>\$39.99</del> <b>\$16.99</b> 0.36 L ROSE EA

###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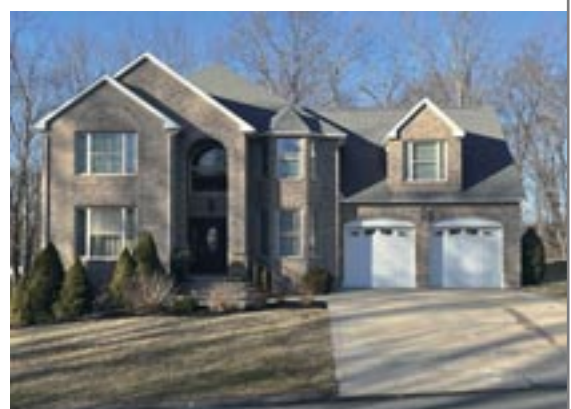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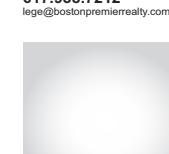
 <b>이사 이제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j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hyu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송</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hy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줄리 전</b> 978.494.2043 <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kkiepark@gmail.com</small>	<b>피터 주</b> 617.780.7839 <small>thepeterjinateam@gmail.com</small>	<b>지나 최</b> 978.866.3248 <small>thepeterjinateam@gmail.com</small>	<b>이현주</b> 401.935.3397 <small>hyunju0921@gmail.com</small>
					
<b>사라 유</b> 617.838.5787 <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정</b> 617.455.7710 <small>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황수진</b> 617.538.6973 <small>sujiwang1@gmail.com</small>	<b>마사 송</b> 213.503.0397 <small>marci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키 최</b> 413.507.1402 <small>mickichoi@gmail.com</small>	<b>손창배</b> 617.913.3369 <small>s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최진민</b> 617.877.0387 <small>jinho52@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영순</b> 781.800.3412 <small>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한혜숙</b> 781.999.1214 <small>hh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차민영</b> 617.515.1162 <small>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준균</b> 617.543.5728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메건 리</b> 404.641.5102 <small>meg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wang6000@gmail.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0316 <small>shirley.zhao.boston@gmail.com</small>	<b>Vivian Yu</b> 617.935.2713 <small>vivia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522.8979 <small>xianyu2022@gmail.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jianglbox@gmail.com</small>
					
<b>John Tran</b> 617.406.965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8 <small>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076 <small>mik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a</b> 857.210.883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6.270.2923 <small>jun.w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938.7212 <small>leg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3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빈센트 박</b> 201.446.8595 <small>vincent@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크 김</b> 781.956.0409 <small>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상현</b> 857.260.0434 <small>sang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mi Belanger</b> 413.237.1586 <small>mimiy111@hotmail.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수호 책무 포기 · 엄정책임"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 12·3 비상계엄 가담 탄핵소추 1년만  
경찰수장으로 헌정사상 첫 사례... "대의민주주의 · 권력분립원칙 위배"  
趙 입장문 "헌재 결정 존중... 공식사회서 같은 사례 반복되지 말아야"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해 권력 분립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회 폭동 유도 여부 및 집회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렸거나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파면 결정 뒤 입장문을 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식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심판정에 나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무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이라면서 "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헌정 도전이라는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보다 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대해 위법성에 다름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판결 이유를 중앙지법 판사들이 잘 숙지해서 재판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재는 3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을 앓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이 답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이에 들어가지 못했고, 본회의도 지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 측은 우발상황 대비를 위해 국회에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윤석열이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쉽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못 박았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월담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른바 세차레 '항명'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청장이 안가 회동 이후 김봉식 전 서울청장으로부터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은 점,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기획조정관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 및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며 우발 대비 목적으로 경력을 배치했다는 조 청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경찰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지닌 고도의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190명의 의원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모여들었고, 시민들 역시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통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들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등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경찰청장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자신의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히 위헌인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



조지호 전 경찰청장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DEC. 18<sup>TH</sup> - DEC. 25<sup>TH</sup>, 2025



# Hello Kitty Rice Steamer

## 코토 X UNCANNY

### 헬로키티 유리뚜껑 밥솥

3 CUPS/EA



LIMIT 2 ~~REG. \$39.99~~  
**\$29.99**

samlip



## KOREA'S No.1 STEAMED BUN

### 정통단팥 Sweet red beans



~~REG. \$8.99~~

# \$5.99

LIMIT 2  
 25.39 OZ  
 (8 EA/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대홍수' 김다미 "모성애 어려웠지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했죠"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모성애가 이 작품을 선택하기까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과연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이해한다고 연기할 수 있는 걸까. 그래도 도전해보자 했죠."

영화 '마녀'(2018)의 초능력 여고생부터 드라마 '그 해 우리는' 속 사랑에 고민하는 평범한 청춘의 모습까지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 김다미가 이번에는 아들을 가진 엄마 역에 도전한다. SF 재난 블록버스터를 표방하는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에서다.

김다미는 16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 이파크몰에서 열린 '대홍수' 제작보고회에서 모성애 연기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대홍수'는 대홍수가 덮쳐 지구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인류가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에서 생존을 위해 벌이는 사투를 담았다.

김다미는 인공지능 개발팀의 연구원이자 6살 아들 자인(권은성 분)을 홀로 키우는 엄마 안나역을 맡았다. 안나는 대홍수 속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애쓴다.

김다미는 "자인을 사랑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자인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성애에 관해서는 "나 자신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정도로 유추했다"며 "제가 연기한 부분은 (모성애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 감정으로 느낄 만큼,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드라마 '악연'과 '자백의 대가', 영화 '굿뉴스'에 이어 '대홍수'까지 올해 넷플릭스에서 네 작품을 선보이게 된 박해수는 '대홍수'에 많은 애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연구소 인력보안팀 소속 희조 역을 맡았다.

박해수는 처음 대본을 접할 당시 "일반적으로 잘 읽히는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암호처럼 쓰여 있었다"며 "재난물로 알고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 '이게 뭐지', '구현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보지 못했던 재난물이었다. 세 인물을 따라가는 작품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했고 만들면서 애착이 더 생겼다"며 "SF 재난 블록버스터지만, 작품을 끝까지 보고 나니 먹먹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메가폰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전지적 독자 시점' 등을 연출한 김병우 감독이 잡았다.

김 감독은 "재난 장르와 SF 장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두 장르의 재미를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영화"라며 "이 이야기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작업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제목 '대홍수'에 관해서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장르와 상황을 잘 설명하는 이 단어가 작품이 끝날 때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 감독은 "물이란 게 수마(水魔)처럼 재난으로 얘기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여러 형태를 띠 수 있는 게 물"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영화에 자신이 오랜 기간 품고 있던 질문도 담겨 있다며, 이를 관전 요소로 제시했다.

그는 "사랑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영화의 의미를 더 잘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신비스럽고 사랑스러운 영화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홍수'에는 안나의 아들을 맡은 아역 권



은성을 비롯해 전해진, 이학주, 박병은 등의 배우도 출연한다.

영화는 오는 19일 공개된다. encounter24@yna.co.kr

##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 비영어 쇼 부문 1위

(서울=연합뉴스) 고기혜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자백의 대가'가 지난주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시리즈물로 꼽혔다.

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집계한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 8~14일 '자백의 대가' 시청 수(Views · 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570만으로,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한국 등 총 39개국에서 비영어 쇼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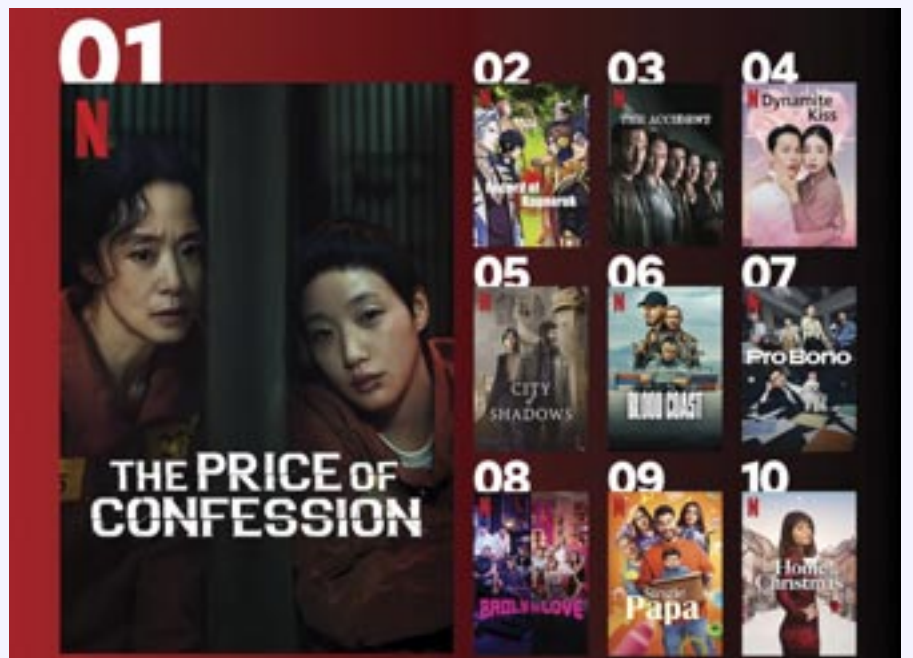
'자백의 대가'는 남편을 죽인 용의자로 몰린 안윤수(전도연 분)가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범 모은(김고은)으로부터 거래를 제안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다.

극중 모은은 윤수에게 거짓 자백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줄 테니, 대신 교도소 밖에서 다른 사람 한 명을 죽여달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이 시리즈는 전도연 · 김고은의 탄탄한 연기력과 더불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화제를 모았다. 그 결과, 공개 첫 주 비영어권 2위로 시작해 2주차 만에 1위로 올라섰다.

이외에도 비영어권에서는 장기용 · 안은진의 로맨틱코미디 '키스는 괜히 해서!'가 4위(440만 시청 수), 정경호 주연의 법정물 '프로보노'가 7위(160만 시청 수)를 차지했다.



# ▶▶ Meet Me at

# the MFA ▶ Winter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 Hanukkah

- ▶ Thursday 12/18
- ▶ \$5 admission after 5 pm



**Exhibition**

## Martin Puryear: Nexus

- ▶ Through 2/16

**Exhibition**

## Winslow Homer in Watercolor

- ▶ Final weeks
- ▶ Closes 1/19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3) 주식시장은 '강세'인데, 내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요즘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다. 시장 지수가 오르면 내 주식도 당연히 올라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수는 치솟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바로 잘못된 종목 선택과 소수 대형주의 집중 현상 때문이다.

윌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스펜서 제이콥(Spencer Jakab)은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S&P 500 지수가 오른 날, 그 구성 종목 중 임의로 한 종목을 고르면 실제로 그 종목이 상승했을 확률은 약 20%에 불과했다. 즉, 지수가 오를 때도 다섯 종목 중 네 종목은 하락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찰스 슈왓의 수석 전략가 리즈 앤 손더스(Liz Ann Sonders)에 따르면, 1990년 이후 S&P 500이 상승한 날 중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시장이 극도로 집중되고 불균형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한국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코스피가 올해 들어 70% 가까이 상승했지만, 돈을 벌었다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라고 전했다. 지수가 상승해도 대부분의 개인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도,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상승 초기에는 주저하다가, 이미 충분히 오른 뒤에야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다 손실을 오래 견디다가 겨우 분전을 찾거나 약간의 이익이 나면 서둘러 팔아버린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두려움에 매도하거나 투자를 중단한다. 이로써 싸게 살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된다. 결국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비합리적인 패턴을 반복하면서 시장 상승의 과실을 얻지 못한다.

시장의 정점이나 바닥을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은

두려움과 탐욕에 흔들리며, 시장 타이밍을 맞히려다 오히려 손실을 키운다. 모닝스타(Morningstar)의 연례 보고서 'Mind the Gap' 은 이런 비효율을 수치로 보여준다. 잘못된 매매 타이밍 때문에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펀드 자체 수익률보다 10년 누적 기준 4% 이상 낮았다.

이 차이는 주로 공포에 휩싸여 폭락 직후 팔고, 시장이 회복될 때 다시 진입하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일의 절반은 약세장 도중 혹은 직후에 나타났다. 남들이 팔 때 버티거나 매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현금화한다.

이런 실수는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조차 같은 심리적 오류를 반복한다.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Cash as a percentage of AUM)이 급격히 높아진 시점—2000년 5

월, 2008년 12월, 2020년 4월—은 모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직후였다.

표면적으로는 환매 대응을 위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비관론(Unhealthy Pessimism)이 작용한 결과였다. 전문가도 두려움 앞에서는 망설인다. 반대로 최근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율은 1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현금의 없는 시점은 과거 2000년대 초 기술주 버블 직전, 1970년대 초 강세장 정점 직전이었다. 역사는 언제나 과도한 낙관 뒤에는 조정이 따른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

진정한 투자자는 단기 등락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얼마나 꾸준히 지켜가는가로 평가받는다.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인내와 원칙, 그것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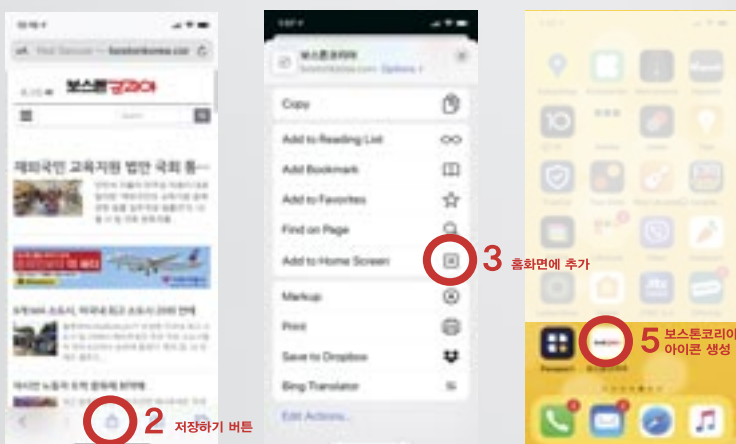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일부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재외동포청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2025 YOUNG LEADERS SYMPOSIUM

PARENTS | CAREGIVERS  
STUDENTS

Join experts to hear their experiences, insights, and feats. The panel will explore pursuing a career in law, impact of bullying & hazing on a child's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tay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 Distinguished Panel



DA Marian Ryan  
Middlesex County  
District Attorney



Mia Yeung  
LMHC, LMFT  
Chair, KACL-NE



Sam Kim  
Lt. US Navy  
Chaplain



Esther Kim  
Law Student  
3:03 Prosecutor

## Key Discussions & Insights (Symposium is FREE)

- ✔ Bullying & Hazing
- ✔ Depression & Mental Health
- ✔ Underage Drinking or DUI
- ✔ Career in Public Service

RSVP: [Newenglandkacl@gmail.com](mailto:Newenglandkacl@gmail.com)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Fundraiser to follow at 7 pm.  
Student Ticket price \$50.



**20 December 2025 at 5- 7 PM**



More information  
617-299-0294



Visit our website  
[kacl-ne.org](http://kacl-ne.org)

# 미처 몰랐던 다층의 판도라... '불과 재'로 덧칠된 '아바타 3'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총 천연의 대자연이 원형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곳이자 모든 생물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아름다운 행성. 2009년 충격적인 신선함으로 전 세계인을 열광시킨 영화 '아바타' 속 외계 행성 판도라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다.

자원 고갈 위기에 처한 인간이 판도라에 침투하려 한 것도 지구에는 없고 신비의 대자연 판도라에만 있는 대체 자원 때문이었다.

나비족은 이런 대자연의 영혼을 '에이와'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평생 자연과 교감하며 거대한 생명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간다. '당신을 봅니다'(I see you)라는 나비족 인사는 언어 그 이상의 깊은 교감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아바타: 불과 재'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온몸에 붉은 칠을 하고 위협적으로 송곳니를 드러내는 호전적인 집단 '재의 부족'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들은 큰불로 삶의 터전을 모

두 잃은 뒤 약탈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삼았다. 자연과의 교감은 과거의 일이 됐고, 여성 지도자 '바랑'(우나 채플린 분)의 공포정치에 부족원들은 머리를 조아린다. 평온과 조화의 상징이던 이전 시리즈의 나비족과 같은 종족이 나타나 싶을 정도로 약의가 가득한 모습이다.

'재의 부족'은 기존 '아바타' 시리즈의 주요 갈등이던 '나비족 VS 인간' 구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아바타' 1, 2편을 이끌어 온 주인공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 가족이 이끄는 '산호초 부족'과 인간은 어느 순간에는 '재의 부족'에 맞서 협력하기도, 어느 순간에는 여전히 극렬히 대립하기도 한다.

기존 시리즈에서는 '화려한 볼거리'에 비해 서사 구조가 단순하다'는 점이 하나의 아쉬움으로 제기됐다면, 이번 작품은 3D전 구도로 갈등의 복잡성을 더했다.

새로 소개되는 '재의 부족'과 '바람 상인 부족'의 서사도 판도라 세계관에 전에 없던 다층성을 부여

한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부족들의 등장은 그동안 관객이 엿본 판도라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안에는 훨씬 더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사랑해서 더 자주 다투게 되는 가족의 모습과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물들의 내적 갈등처럼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인간적인 고민도 곳곳에 담겼다.

전작인 '물의 길'에서 장남 네테이암의 죽음을 겪은 가족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슬픔, 분노 등 감정이 특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어머니인 네이타리의 슬픔과 적(인간)에 대한 증오, 인간이 너무 미워서 남편 제이크 설리가 원래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괜히 싫어지는 마음도 너무나 인간적이라 공감을 자아낸다.

나비족 주인공들의 감정은 입꼬리와 눈매의 작은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려낸 VFX(시각 특수효과)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아바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특수효과 등 기술이 발전해 지금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미지를 전부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바타: 불과 재'의 상영 시간은 3시간 17분이다. 2시간 42분이던 1편, 3시간 12분이던 2편보다도

더 길어졌다.

하지만 거대한 해파리 모양의 돛대를 단 하늘 위 선박과 보라·초록·파랑의 빛이 어우러지는 바닷속 오로라, 모든 걸 걸고 싸우는 대전투 장면 등은 긴 상영시간 내 영화적 체험을 선사한다.

17일 개봉. 197분. 12세 이상 관람가

12월 21일 - 12월 27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쥐띠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가</b></p> <p>● 운수: 힘들게 산을 넘고 이제는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원하던 돈도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 애정: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미혼 남녀는 일생을 같이할 배필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때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기일, 24, 2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소띠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b></p> <p>● 운수: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를 얻게 됩니다. ●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는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1, 26일 기일, 25, 2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범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b></p> <p>● 운수: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서기보다는 뒤따르는 형식을 취하면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 금전: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 금전운이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조름게 진행되고 수입이 나아집니다. ● 애정: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화를 녹이고 기쁜 줄게 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27일 기일, 24, 2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토끼띠   깊은 관심이 필요한</b></p> <p>● 운수: 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금전: 항상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3, 25일 기일, 21, 2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용띠   이정표를 찾도록</b></p> <p>● 운수: 살아가는 데에 길이 많지만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도록 하세요. ● 금전: 지난날에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니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3일 기일, 22,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뱀띠   현실적인 판단이</b></p> <p>● 운수: 능력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큰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금전: 어느 때보다도 씬이 늘어납니다.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 애정: 애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2, 27일 기일, 23,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말띠   여유 있는 마음을</b></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의욕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보려는 생각은 있지만, 몸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웅충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무언가 결심까지 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3, 26일 기일, 21,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양띠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b></p> <p>● 운수: 볼래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쓰면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 문제로 부부가 옥신각신하기 쉬우니 내가 먼저 참도록 하세요. ● 애정: 새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것을 가버려 여기고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평도 매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6, 27일 기일, 21, 2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원숭이띠   되로 주고 말로 받는</b></p> <p>● 운수: 평소 계획한 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윗사람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어집니다. ● 애정: 혼자 지내오던 사람은 이상형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자기한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1, 25일 기일, 23, 2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닭띠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b></p> <p>● 운수: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생해서 얻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평화를 찾게 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2, 26일 기일, 21,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개띠   냉철한 눈으로</b></p> <p>● 운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 금전: 꼭 들어올 돈은 미루어지고 급하게 쓸 일은 생기게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이니 지출에 신경 쓰세요. ● 애정: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7일 기일, 22, 2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10px auto;"> </div> <p><b>돼지띠   인덕이 따라주어</b></p> <p>● 운수: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덕이 따라줄 것입니다. 실업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들어와야 하는 돈이 들어오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됩니다. ● 애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기일, 23, 26일 주의.</p>

# 스님도 미슐랭 셰프도 '생존' 경쟁...더 맛있어진 '흑백요리사2'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직접 막걸리를 증류해 소주를 내리고, 삼겹살을 얇게 잘라 탑을 쌓는가 하면 계란지단으로 보자기를 만들어 전가복을 채워 넣는다.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음식들로 무장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이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시즌1 공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시즌2를 내놓으면서 전작의 화제성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더 강력한 출연진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보여줬다.

지난 16일 공개된 1~3화는 쟁쟁한 출연자 소개에 초점을 맞췄다.

백수저로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과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을 이끌었던 후덕죽 셰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 이준·손종원·김희은·심성철·김성운·김진 등이 참여했다.

흑수저에도 유명 참가자들이 나섰다. 미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프렌치 런드리의 수셰프(Sous chef), 국내에 분자요리 도입한 셰프, 해외에서 인기 한식당을 이끄는 요리사 등이 눈길을 끌었다.

시즌1이 흑수저 80명, 백수저 20명의 경쟁을 보여줬다면, 시즌2는 흑수저 80명에 백수저 18명, 그리고 히든 백수저 2명을 내세웠다.

시즌1에 참가했던 김도윤·최강록 셰프가 '히든 백수저'라는 이름으로 나와 흑수저 참가자들과 함께 1차 예선전을 벌였다.

쟁쟁한 참가자만큼 요리도 한층 다양해졌다. 바비큐, 사찰음식, 동남아시아 요리, 분자요리 등 갖가지 조리 방식과 다채로운 식재료가 연달아 나왔다.

시즌1에 이어 안성재와 백종원이 심사위원으로 나섰다.

다만 백종원은 시즌1을 리드하던 모습과 달리, 한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존재감이 줄었다. 참가자와 농담을 주고받거나 훈수를 두기보다는 담백한 평가에 초



점을 맞췄다. 또 장갑을 끼고 햄버거를 양껏 씹거나 주안상 형식의 요리를 입 한가득 넣어 맛보는 등 시식 모습이 주로 화면에 비쳤다.

안성재는 더 날카로워진 평가로 시즌2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분자요리를 맛보고서 "시간이 흘러서 질소 테크닉과 이소말트 테크닉이 굉장히 오래됐다. 20년 전 요리를 생각나게 한다"고 탈락을 선언했다.

경연에서는 국내에서 이름이 알려졌거나 경력이 화려한 셰프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명세보다는 맛에 집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잔뼈가 굵은 요리사들의 노력과 눈물을 보여주는 데도 집중했다.

'술 빛은 윤주모', '4평 외톨이' 등 흑수저 참가자들이 '생존' 선고를 듣고 주저앉아 눈물을 쏟는 장면이 잡히며 감동을 더했다.

'흑백요리사' 1~2화까지는 참가자 면면을 조명하는 모습이었지만, 3화부터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백수저와 흑수저의 일대일 대결인 '흑백대전'이 시작되며 한층 흥미로운 경연을 예고했다.

전국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특산물이 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리하는 형식

이다.

양식·한식 각각 미슐랭 1스타를 받은 백수저 손종원 셰프와 흑수저 '쓰리스타 킬러'가 맞붙어 파인다이닝 대전을 벌였고, 백수저 선재스님과 흑수저 '뉴욕에 간 돼지곱창'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 대결을 선보였다.

기세를 몰아 '흑백요리사2'가 전작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흑백요리사' 시즌1은 지난해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

어 쇼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heeva@yna.co.kr

# 올해 노래방 최고 인기곡은 우즈 '드라우닝'...케데헌 OST도 두각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올해 노래방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는 우즈의 '드라우닝'(Drowning)으로 나타났다.

TJ미디어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TJ미디어 노래방 반주기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곡을 조사한 결과 우즈의 '드라우닝'이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TJ미디어는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남성 솔로 가수 노래가 노래방 연간 인기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이창섭의 '천상연', 2023년에는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가 1위를 기록했다.

황기람의 '나는반딧불이' 우즈의 뒤를 이었고, 조짜즈의 '모르시나요'가 3위를 차지하는 등 올해 차트에서도 발라드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차트 1위였던 이창섭 '천상연'은 4위를 지켰다. 버즈의 '마이 러브(앤드)'(My Love(And))와 '남자를

몰라'는 각각 5위와 8위, 이지희의 '응급실'은 6위를 차지하는 등 2000년대 히트곡들이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9위에 자리했다.

1989년 발표된 변진섭의 '숙녀에게'는 KBS '개그콘서트'에 소개된 것을 계기로 작년 대비 829계단 순위가 상승한 40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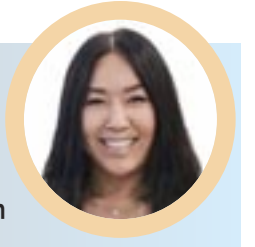
올해 새롭게 노래방에 수록된 곡들의 인기 순위를 조사한 결과 조짜즈의 '모르시나요'가 1위, 마크툼 '시작의 아이'가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골든'이 3위, '소다팝'(Soda Pop)이 10위를 기록하는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가 두각을 나타냈다.

cjs@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 매일 일상에서의 '루틴의 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극적인 한 순간보다, 조용히 반복된 하루하루가 우리의 우리를 만들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한번의 뜨거운 은혜 체험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과 반복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 오늘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의 루틴의 힘'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서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하루의 방향은 하루의 습관에서 나오고, 인생의 방향은 반복된 루틴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 1:35)

예수님도 루틴을 가지셨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으며, 중요한 사역 앞에서는 반드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

셨다. 주님조차 루틴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우리에게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다. 루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힘이다. 우리는 큰 결단보다 작은 반복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된다.

루틴은 삶의 기초체력을 만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들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복은 신앙과 삶의 근력을 키운다.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고,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며, 감정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는 훈련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루틴은 선택의 피로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게 한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한다. 루틴이 없으면 에너지는 사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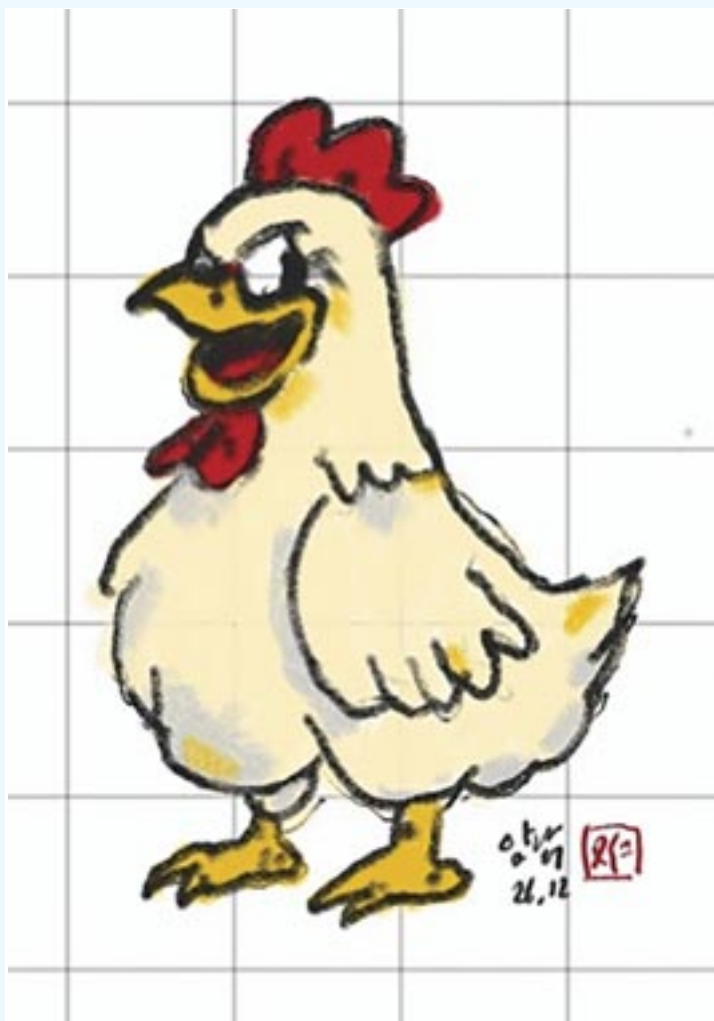
결정에 소모된다. 그러나 루틴이 자리 잡으면,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남길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분을 유지하게 된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위기 때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평소애 쌓아온 루틴의 결과였다.

루틴은 신앙을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만든다. 신앙이 특정한 날이나 상황에만 머물면 쉽게 약해진다. 그러나 루틴이 되면 신앙은 자연스러운 호흡이 된다. 예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고,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끊임없이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흐름이 되라는 말씀이다.

작은 루틴이 큰 방향을 만든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매일 반복한 것이 결국 나의 인생이 된다. 하루 10분의 말씀 묵상이, 하루 한 번의 감사 고백이, 그리고 하루 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반복의 루틴이 되어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 작은 루틴이 쌓여 인격을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챙기며, 교회와 사회의 일원으로 믿음과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루틴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하게 한다. 무너질 때 다시 설 수 있는 자리, 길을 잃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표지가 바로 루틴이다. 오늘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오늘의 작은 충실함을 통해 내일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 루틴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다. 오늘 내가 특별하지 않은 미미한 하루를 보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오늘의 반복 속에서 내일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미국은 평등사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현실에서 평등은 인종 및 성별간의 불평등을 비롯해 소득과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했다.

인간의 복잡하고 상충되는 욕구란. 평등하기를 바라는 욕망과 차별화에 대한 욕구라는 거다. 정연복 시인이다. 하늘과 나가 제 목이다.

저 높은 하늘의  
햇빛과 달빛과 별빛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찾아온다.  
부자나 권력자라고 빛을

더 많이 비추어주지도 않고  
(정연복, 하늘과 나 중에서)

그래서 그런가. 미국의 성평등 지수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한참 밀린다고 했다. 참 이런 세상에 별 일도 다 있네. 왕년엔 미국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아니면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던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라 한다. 다른 사람과는 평등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 특별한 대우를 받고픈 욕망이라는 거다. 인간의 욕망은 비싼 브랜드 옷과 값비싼 자동차에 넓고 비싼 집을 찾는다

했다. 다른사람들과 평등하지 않기를 바란다. 거다.

평등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뿐이다. 위쪽에서 끌어 올리든지, 아니면 아랫편에서 끌어 내려 보폭을 맞추든지. 말하나 마나 끌어 올리는게 당연히 낫다. 마땅히 그리 해야 하는게 옳다는 말인 거다

암담들이 더욱 크고 목소리로 힘차게 울지니. 양갈진 목소리라면 더욱 좋겠다. 그 울음덕에 새벽은 일찍 올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시에 충만케 하심이라 (이사야 33:5)

한국속담이다. 새벽엔 솟닭이 울어야 날이 밝는다. 한편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도 있다.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망발은 없다. 그러나 여성의 목소리가

크면 될일도 되지 않는다는 말일 게다. 이제는 없어졌고 진작에 없어져야 마땅한 속담이다. 미국은 평등사회로 알고 있었 다. 독립선언문에 그렇게 선언되

#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 보스톤 **코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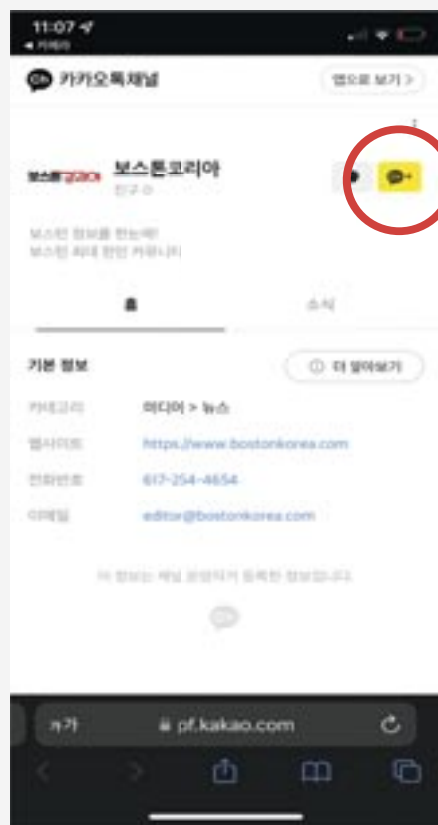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



# 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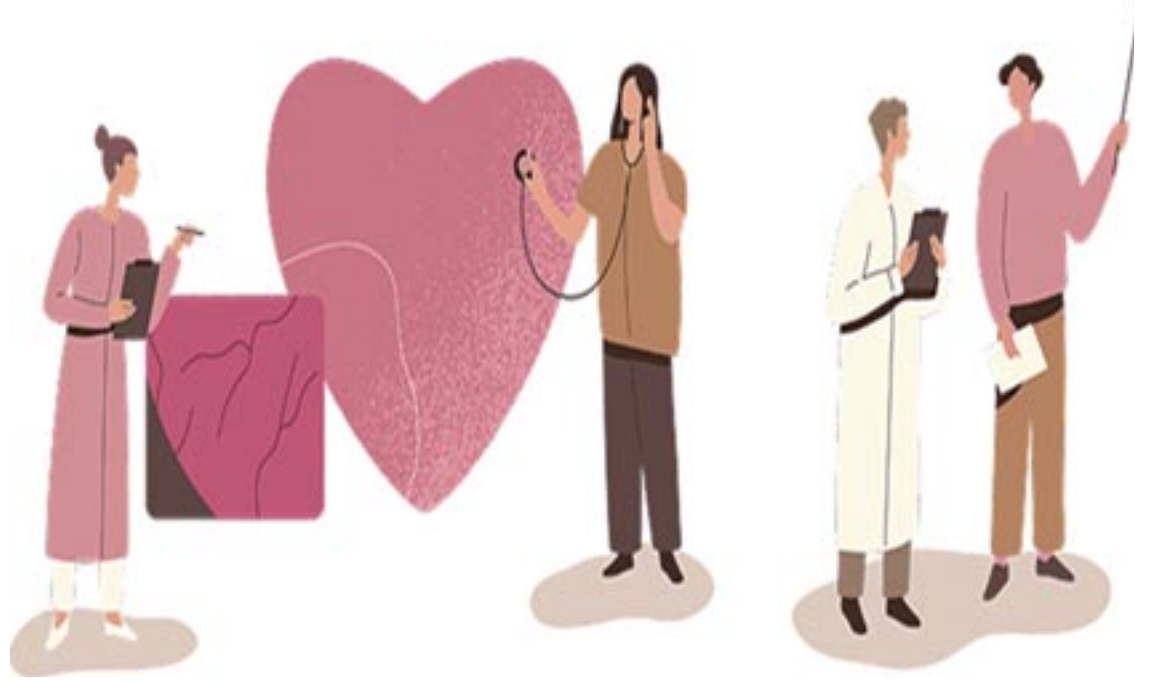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심혈관질환에 대한 궁금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원 호연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위급한 순간,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하다.

“심장에 병이 발생한 경우 굉장히 위험하지만, 제때 적절히 치료받고 관리를 꾸준히 잘한다면 평범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은 그만큼 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치의와 잘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운동 및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Q심혈관질환의 주요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 등 노화를 가속하는 위험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심혈관질환 환자가 있다면 심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 심혈관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인 검사로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심장 심전도검사,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심장초음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CT, MRI, 경동맥초음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건강검진 시 위와 같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예방과 관리는 빠를수록 좋지만, 그래도 40대 이후부터는 위험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혈관질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Q 심혈관질환이 발생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결국 노화로 인해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혈관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도,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결국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요. 귀찮다고 빼먹지 말고 꾸준히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Q 심혈관질환 치료 이후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치료 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시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어느 정도 뚫어놨다 하는 경우라면 운동을 하는데 있어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술 혹은 수술 후에는 기능

자체가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치료 후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운동이나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궁금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shealth.us

**Hmart**  
hmart.com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신문,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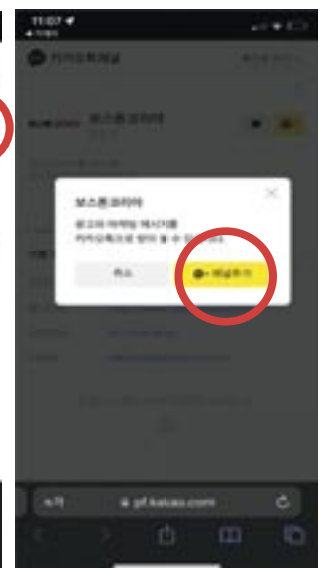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